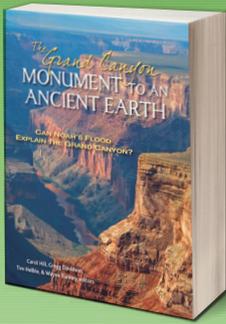




얽박하고 교리적인 동일과정설의 노예가 된 그랜드캐년



지난 2018년 1월 “그랜드 캐니언, 오래된 지구의 기념비”(새물결 플러스)라는 번역서가 출판되었다. 원본은 “The Grand Canyon, Monument to an Ancient Earth: Can Noah’s Flood Explain the Grand Canyon?”(Carol Hill, Gregg Davidson, Tim Helble, and Wayne Ranney, Kregel, 2016)이다. 이 책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창조과학자의 “Grand Canyon: Monument to Catastrophe” (그랜드 캐니언 격변의 기념비, Steven Austin,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1995)의 제목을 겨냥한 책이다.

두 책을 모두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라면 앞선 Dr. Austine의 책이 그 깊이와 너비에서 훨씬 뛰어날 뿐 아니라, 나중에 쓴 책에서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이미 앞선 책에 대부분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이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한국의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에 의해 번역되었다. 이에 독자들의 혼란을 막고 지구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특집 기사를 준비하였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지질학적 쟁점들에 대하여 다룰 것이며,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단지 책 자체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진화론적 지식들을 벗어버리고 성경적 사고로 전환되는 훌륭한 기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먼저, CMI(Creation Ministry International)의 John Woodmorappe의 서평을 읽는 것은 이 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이를 먼저 소개한다.

미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그랜드 캐니언은 지구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질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삼화가 많고 광고가 많이 되었던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자극과 도전을 받을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 책이 너무 피상적인 내용만 다루었기 때문에 약간 짜증이 났었다. 독자들에게 이 책과 함께 창세기 대홍수(Genesis Flood, John Whitcomb and Henry Morris, 1961) 와, 그랜드 캐니언: 격변의 기념비(Grand Canyon: Monument Catastrophe)를 비교해 볼 것을 권면한다.

이 책에서 다루어진 거의 대부분의 논쟁들은 위의 창조과학의 두 고전의 책에서 이미 답변이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리고 두 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논쟁들도 최근 창조과학자들의 연구와 여러 지면을 통해서 이미 답변이 되었던 것들이다. 이 책 서평의 후반부에서 나는 몇몇 다른 지질학적 주제들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동일과정설을 선호하며 타협이론을 만든 복음주의자들이 쓴 글의 모든 논리적 오류를 다루기 위해서는 책 한권의 분량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 책의 서문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듯이 이 책의 배후에는 '유력한 용의자들이 있다. 이들은 데이비스 영, 소위 미국 과학 연맹, 존 템플턴 재단, 그리고 바이오로고스 재단이다.

이 책은 글마다 다른 저자들이 쓴 것을 모은 문집이다. 나의 서평에서 '저자들'이라는 구절이 사용된 것은, 특정 글의 저자를 가리키고 있음을 밝혀 둔다.

정말로 새로운 것이 없다

저자들은 홍수지질학(Flood Geology)이 20세기의 발명품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적 증거를 간단히 살펴만 보아도 명백히 드러나듯이, 홍수지질학의 시작은 지질학이 시작하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책의 논리는 타협된 복음주의적 사고의 케케묵은 관습 이상 어떤 것도 아니다. 이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믿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 성경은 실제적 정보(과학)에 관한 책이 아닌 영적 진리에 관한 책일 뿐이며, 그들은 이분법적으로 손쉽게 분리될 수 있다.
- 과학 문제들에 대한 성경 해석은 과거에 가끔 틀린 적이 있으며(갈릴레오의 예), 따라서 모든 과학과 관련된 해석들도 마찬가지다.
- 대홍수는 전 지구적이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도 때때로 보편적 의미가 아니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등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케케묵은 논쟁의 예를 들자면, 방주의 틈을 막는 역청에 대한 것이 있다. 즉 홍수지질학자들은 대홍수 이전에 석유에 기인하지 않는 역청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식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역청은 나무에서 나온 타르가 아닌, 석유에서 나온 것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사용된 역청이 왜 석유에서 나온 것이어야만 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않는다. 실제로 역사적

으로 사람들은 역청을 송진과 숯을 끓임으로써 만들어왔다.

이 책에 있는 이런 논리들은 타협된 복음주의자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낱아빠지고 또 낱아빠진 생각 그 이상 어떤 것도 아니다. 저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치더라도, 석유 기원에 대한 최근의 논문은 어떤 석유는 맨틀로부터 나온 무기물 질로부터 유래했음을 제시한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대홍수 이전에 약간의 석유가 존재했다는 것이 가능하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또 다시금 민물 생물과 바닷물 생물이 대홍수 동안 동시에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도전은 오래 전에 해결된 문제이다. 다시금 독자들은 히브리 단어 *eretz*(에레츠, 땅)가 지구라는 행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떤 '지역'이나 '토양'을 지칭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들의 해석을 적용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몇 천 년 전 중동지역에서 토양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인데(역자 주: 그들은 창세기가 중동 지역의 설화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그들이 믿는) 표준 지질학의 '합의된 과학'과 일치하지 않는다. 더욱이 '*eretz*'가 성경 저자들에게 '알려진 세상'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는 노아 홍수가 최소한 나일강과 페르시아만 사이의 영토를 덮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전 지구적 대홍수뿐 아니라 동일과정적 지질학과도 충돌한다.

이러한 것이 타협된 복음주의적 사고에 대한 귀류법(reduction ad absurdum: 논리적 결과가 터무니 없거나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전체의 허위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잠깐! 더 재미있는 것이 또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들은 실제로 갈릴레오의 사고를 가지 없게 만드는 성경의 표현에 대해('흔들리다'라는 같은 히브리 단어를 사용한 시편 16절 8절¹이 아닌) 시편 104편 5절²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는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짓는다. 지식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여기서 웃어야 하는가?

과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

책의 저자들은 어떤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을 마치 전체 창조론을 대표하는 것처럼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 저자들은 모든 창조론적 지질학자들이 격변적 판구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격변적 판구조론이 극복하기 어려운 열 문제(heat problem)를 들먹인다.

다른 주제를 보자. 이 책의 저자들은 어떤 홍수지질학자들(나를 포함한)은 홍수



물이 광역적인 구조운동에 의해 이동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선호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채, 모든 홍수지질학자들이 지구를 휘도는 거대한 쓰나미로 해석한다는 것에 집착하는 듯 하다(대륙을 덮는 사암층이 단 한번의 퇴적 사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을 덧붙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부적이고 광역적인 사암은 마치 기왓장처럼 중첩되어 거대한 판상의 사암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는 기존 지질학에서 조차 받아들인다).

저자들은 홍수지질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의견 불일치를 들춰가면서, 진화론적 동일과정설의 허술한 증거들을 통해 자신들의 근본적인 의견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홍수지질학자들을 강하게 반박한다(pp. 176-177). 이런 잘못된 논쟁은 양쪽을 똑같이 평가절하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수천 명의 동일과정설적 지질학자들을 대항하는 홍수지질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후자의 연구 용량은 전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의견 불일치, 특별히 근본적인 주제들에 관한 것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실제로 홍수지질학자들에게 보다 동일과정설적 지질학자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창조론자들 사이의 의견불일치가 모두 순수하고 발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책의 저자들 중 몇몇은 어떤 화석층이 홍수 이전, 홍수 동안, 그리고 홍수 이후의 것인가에 대한 창조론적 지질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비롯한다. 이는 단지 대홍수가 많은 현생 퇴적 기록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일과정설적 해석의 함정에 빠진 비판이다. 이 신-큐비에리즘(neo-Cuvierism, 역주: 다중격변론)은 논리적으로 가면 결국 대홍수를 제거하는 쪽으로 귀결되며, 그러므로 신-큐비에리즘이 홍수지질학을 완전히 버린 동일과정설적 지질학 사이의 중간 기착지라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동일과정설의 구속복(straitjacket)

동일과정설의 원리는 자연의 규칙적인 패턴(자연 법칙들)의 현재적 연속성, 지질학적 과정에 의한 지형들(강, 삼각주와 같은), 그리고 그것들의 평균적 속도를 주장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홍수지질학자들 스스로도 세인트 헬렌산을 그랜드캐니언과 견줄 때 동일과정설을 사용한다며 비난한다.

이는 아주 큰 오류이다.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의 지질학적 과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동일과정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가 과거 해석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상식이다. 동일과정설이란 지질학자들의 사고에 족쇄를 채워 지구의 역사에 대해 허튼 방식으로 점진적인 과정에 의한 해석만을 하고, 지구의 과거에 대한 성경의 간결한 가르침은 무시하거나 달리 해석하도록 둘러싸는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앞서 말한 것을 좀 더 명확히 해 보자.

‘현재는 과거의 열쇠이다’라고 하는 진부한 동일과정설의 격언을 생각해 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말로 바꾸면, ‘현재는 과거의 열쇠들 중 하나이지만, 현재는 과거에 대한 유일한 열쇠가 아니다.’ 그것이 홍수지질학자들과 동일과정설을 섬기는 타

협된 복음주의 지질학자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더욱이, 이 책에서 타협된 복음주의 지질학자들에게 동일과정설은 단순한 정서적 상자가 아닌, 구속복이다.

몇몇 저자들의 말은 단지 이러한 속박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확실히 보여 준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라.

“그랜드 캐니언에서 발견되는 퇴적층들은 해수면이 연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의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관찰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어떤 환상적이거나 발견되지 않은 자연 현상들을 들먹일 필요가 없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만약 오늘날의 지질학적 과정이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들을 설명해 낼 수만 있다면, 그 밖에 다른 것은 고려할 것 조차 없다! 이들은 발맞추어 행진하듯 오직 외길로 교리적인 동일과정설을 고수하고 있다.

저자들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반면에 홍수 지질학적 모델은 퇴적층이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형성되는 것을 포함한 많은 환상적이고 한번도 관찰된 적 없는 설명들을 필요로 한다. 노아 홍수에 관한 창세기의 기록에서 전 지구적 쓰나미, 격변적 대륙 이동, 거대한 중력 흐름, 혹은 자연 법칙의 위배에 관한 그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런 추측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놀랍다.”

내가 지금 21세기의 타협된 복음주의 지질학자들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18, 19세기의 허튼과 라이엘, 혹은 당시의 다른 이성주의자들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인가?

저자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는 비통하다. 성경이 어째서 대홍수에 발생한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해야만 하는가? 아울러 저자들의 대홍수에 관한 이해가 둔감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전 지구적 대홍수가 ‘결코 본 적 없는’ 현상을 만들지 못했겠는가? 어떻게 전 지구적 대홍수가 거대한 흐름과 격변적 대륙 이동을 포함하지 않았겠는가?

왜 우리가 고요한 폭발과 같이 기적적인 ‘잔잔한 대홍수’라는 케케묵은 허튼소리를 다시금 듣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무슨 이유로 기적의 하나님(때로는 타협하는 복음주의자들도 믿는다고 공언하는)이 ‘자연 법칙들의 위배’(또는 보다 적절하게 자연법칙에 대한 추가)를 유도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또한 ‘최소 놀람의 원칙(principle of least astonishment: 가능하면 기적은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을 피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술 더 떠서 책에서 인용된 '최소 놀람의 원칙'은 무신론 철학자인 데이비드 흘의 사고를 재포장한 것이다. 이성주이자 흘은 어떤 기적이라도 그 성질상 너무도 환상적이어서 누가 그것을 말하였든지, 믿을 만하든 간에 그것은 실수이거나 거짓이어야만 한다며 '최소 놀람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 책의 타협된 복음주의 저자들이 실제로 동일과정설과 그것의 '최소 놀람의 원칙'을 일관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과학자들은 분명히 죽은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도록 만드는 그 어떤 현재 과정도 알고 있지 않으며, 그 어떤 훈련된 생물학자도 분명히 죽은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관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운반된 앵무조개들과 다른 몸통 (그리고 동물이 만든 자국) 화석들

그랜드 캐니언에서 앵무조개(Nautiloids)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광범위하게 특정 방향 배열을 보이므로 흐름을 갖는 퇴적물의 운반에 기인한다고 해석된다. 이 증거에 대하여 저자들은 방향성이 약한 다른 화석들을 제시하며 이는 쌓일 당시 퇴적물의 흐름이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불합리한 결론이다.

먼저, 홍수와 관련된 퇴적 과정을 그럴 때 퇴적물의 흐름이 항상 일정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흐름이 약화되었을 때 조개들이 특정한 방향 없이 퇴적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단 논의를 위해 흐름이 일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특정한 방향성을 보이는 것은 흐름에 의한 운반의 증거이다. 그러나 특정한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물 흐름에 의한 운반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생명체, 특히 긴 축을 가진 것들은 퇴적물과 함께 휩쓸려 운반될 때, 일반적으로 함께 끌려가는 모래 입자나 서로에게 간섭되어서 특정 방향성을 상실한다.



이제 '제자리에 있는' (혹은 제자리에 있는 듯이 보이는) 화석들을 고려해 보자. 그것들은 일반적인 퇴적 사건으로 설명될 수 있는 제자리에 있지 않은 대부분의 화석들에 비해 그 수가 극히 드물다. 예상대로, 저자들은 화석 기록에서 대홍수와 일치하지 않는 화석들의 순서를 언급하고 이 주제에 관한 과학적 창조론의 입장을 희화하면서, 반창조론적 논문들은 비판없이 인용한다.

그들은 또한 이전 창조론자들의 모델들에 추가된 나의 TAB(Tectonically-Associated Biological Provinces) 모델을 무시하는데, 그것은 특별히 왜 오늘날의 식물군과 동물상이 초기 현생대의 화석 기록과 공통점이 거의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저자들은 암석들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화석을 사용하는 배후에 있는 순환논리를 어색하게 부인하려 한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지층에서 삼엽충이 발견되었을 때(선캄브리아기가 아닌) 캄브리아기로 정해지

고, 삼엽충은 캄브리아기에 제한된 화석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그 순환 논리의 고리는 닫힌다.

이제 이 논의를 몸체 화석에서 동물이 만든 흔적 화석으로 옮겨 보자. 우리는 다시금 척추동물의 발자국이 대홍수에 있어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저자들은 이 주제에 관한 많은 창조론적 연구들을 단순하게 무시했다. 이 주제는 기초적이다. 홍수가 발생한 넓은 면적은 약간의 고도 차이로 인해 연속적으로 노출, 매몰, 다시 노출을 시킬 수 있으며, 단 하나의 중간 이상 크기의 육상 척추동물은 하루에 1만 개의 발자국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유사한 원리는 퇴적층과 물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해양 생물에 의한 발자국 형성에도 적용된다. 땅을 파고 사는 생물들이 퇴적층을 망가뜨리는 것을 고려해 보라. 두꺼운 퇴적층 내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 광범위한 생산작용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홍수에게 제기된 다양한 지질학적 해석들

이 책은 1년 동안의 대홍수가 아닌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지질학적인 여러 특징들을 틀에 박힌 지질학적 사고를 따라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의 이런 모든 결론들은 겉보기에 사실처럼 보이는 주관적 해석들을 수반한다. 그리고 그런 해석들은 모두 동일과정적 사고에 완전히 깊이 빠져 있다. 더욱이 대부분은 알파한 사고에 기반해 있다. 뿐만 아니라 희미하게 재생산된 동일과정적 설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저자들은 피할 수 없는 난류가 필연적으로 다른 형태의 퇴적물을 뒤섞을 것이기 때문에 대홍수는 순수한 탄산염암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논쟁을 꺼내 든다. 그러나 그 규모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 논쟁의 하층은 이익의 제거된다. 대홍수의 깊이가 단지 1 km 밖에 되지 않더라도, 순수한 탄산염 침전물의 면적은 100 킬로미터 x 100킬로미터일 수 있다.

우리는 적어도 너비 100 킬로미터, 길이 100 킬로미터 그리고 깊이 1킬로미터의 이동하는 물을 갖는다. 물의 흐름이 직선적이기만 한다면, 그 물 안에 난류가 얼마나 심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순수한 탄산염만이 그 물 안에서 끌려갈 것이며(아마

1. Genesis Flood, (John Whitcomb and Henry Morris, 1961); 현대 창조론 운동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는 500페이지가 넘는 창조과학의 고전이다. 창세기에 기록된 홍수 심판에 대한 증거와 함께 진화론을 비판함과 동시에 성경을 변증한 책이다. 출판 당시 Whitcomb 박사는 Grace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학 교수였으며, Morris 박사는 Virginia Tech 대학에서 수리공학 교수였고 1970년에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를 설립한 주역들이다.
2. Grand Canyon: Monument to Catastrophe (Steven Austin, 1994); 이 책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제목까지 모방 여대립을 시켰음을 알 수 있다. Austin 박사는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1979년 지질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이래로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에 지질학 교수로 재직했었다.
3.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시68)
4.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시104:5)
5. 허튼은 침식, 퇴적, 용기, 침강 등의 지질학적 변화가 과거에도 오늘날과 같이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반증할 수 없는 주론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지구의 역사가 이를 끝도 없이 반복하는 순환 과정이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지구의 역사에 어떤 초월적 개입도 배제하였다(역자주).
6. 탄산염(CaCO3)을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역자주)



ACT News

그 가장자리 만은 제외된다), 그리고 그 유속이 느려 질 때, 넓은 지역에 걸쳐 단지 순수한 탄산염만이 퇴적될 것이다(역시, 아마도 그 가장자리만을 제외하고).

순수한 탄산염 암석들은 또한 대홍수 중에 초기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다. 대부분 고체의 용해도는 압력과 무관하지만 탄산염의 용해도는 압력이 높을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대홍수 때의 깊은 물은 탄산칼슘을 선택적으로 용해시켰을 수 있다. 이는 특별히 제안된 근원지에 이미 풍부한 탄산염이 존재할 때 더 가능성이 높다. 물이 느리고 얇아져서 수압이 낮아질 때, 방해석은 침전될 수 있다. 탄산염의 용해도가 압력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은 왜 대양에서 방해석이 형성되지 않는, “방해석 보상 깊이”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것이 약 4km 이긴 하지만.

이제 고대 카르스트(paleokarst)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 소위 고대 카르스트는 암석의 층들 사이에 구조적으로 발생한 운동으로 인한 결과로서 해석되어 왔고, 각력들(breccia: 둥글지 않고 모가진 암석 파편)은 단층이나 변형 작용 없이 지각변동이 있었다면 형성될 수 있다. 소위 고대 카르스트 각력암들 또한 콜루비얼 퇴적(colluvial deposit: 바닥이 아닌 경사면에서 퇴적된 것들)일 수 있다.

앞서가는 카르스트 연구자인 시베스트루(Dr. Emil Silvestru)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모든 ‘고대 카르스트’ 해석들은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진짜 고대 카르스트는 적용된 (긴) 시간을 고려했을 때 보존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연관된 주제로서 소위 고생토(paleosols)를 고려해 보자. 그것들 역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사실 크나우스(Knauth)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고대의 퇴적 환경에 대한 해석은 쉽지 않다. 뚜렷한 식물의 뿌리 화석이 없음에도 그 지층에서 고생토는 동일과정설로 보려고 하는 사람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반박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뿌리의 흔적조차도 고생토에 대한 동일과정설적 증거일 필요는 없다. 뿌리들은 물에 의해 외부에서 운반된 것일 수 있다.)

(중략. 지면의 한계로 Creation Truth에서는 여기까지 Woodmorappe의 글을 마친다. 한 페이지 정도 남아있는 나머지 글은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www.HisArk.com)에서 만날 수 있다.)

결론

풍성한 삽화와 사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무신론적 지질학자들, 타협하는 복음주의적 지질학자들, 그리고 신-큐비에주의적 지질학자들이 상상해 낸, 홍수 지질학을 무효화하기 위한 오래된 똑같은 논쟁의 무비판적인 재탕이다. 그것들은, 이 책의 문맥 안에서, 다름 아닌 굳은 동일과정적 이데올로기에 실질적으로 노예가 된 타협하는 복음주의에 대한 기념비일 뿐이다.

존 우드모래프 / 번역: 이충현, 이재만

The Grand Canyon in the thralls of shallow, doctrinaire uniformitarianism
A review of The Grand Canyon: Monument to an Ancient Earth by Carol Hill, Gregg Davidson, Tim Helble, and Wayne Ranney (Eds.), Kregel Publications, Grand Rapids, MI, 2016. Reviewed by John Woodmorappe

창조과학탐사

낙스빌 사랑교회

지난 2월 13-16일 테네시주의 낙스빌 사랑교회(담임목사 정진은)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미주의 한인 이민교회에서 창탐에 참석하는 것은 늘 감사한 일입니다. 참석자들은 성경에 대한 확신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한 계획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번 창탐에는 평택 주민교회 청년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서초 충신교회

지난 2월 19-23일 서초 충신교회(담임목사 배철희)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충신교회에서는 이번이 두 번째 창탐 참석입니다. 이번에는 주로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 창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이 시대가 진화론으로 가득 찬 세상임을



확인하고, 이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성경의 증거를 통해 성경이 사실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신교회는 지난 3년간 매년 3월마다 사흘간 이재만 회장을 초청해서 집회

를 열어왔습니다. 이번 창탐에 대림교회(김명호)의 열두 분과 온누리교회 목사님 네 분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행복한교회

지난 2월 24-27일 행복한교회(담임목사 박진성)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행복한교회는 그동안 수시로 창탐을 보내왔었으며 여러 번 창조과학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단체로 오신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주로 젊은 청년들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크리스천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최근 등장한 타협이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번 창탐에 미주순회선교단 여섯 분도 함께 하셨습니다.

EM창조과학탐사

최근 EM 창조과학탐사 횟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창조과학선교회에 김선옥 박사, 김낙경 박



행복한교회



벨링햄 화평교회



용인글로벌기독교학교



제일영광교회

서초중신교회



사, Bill Hoesch 세 분의 EM 창탐 인도자가 있습니다. EM창탐을 통해서 미주의 2세들에게 성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과학선교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재만 회장 한국 방문

이재만 회장은 지난 3월2일에서 4월 2일까지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합동신학원 등 학교 뿐 아니라, 기독교미래연구소(소장 소재찬), 서초중신교회(담임목사 배철희), 서울목양교회(김용수), 청파중앙교회(김항우), 온누리교회(담당 조호영), 성민교회(김병호), 반월중앙교회(박종배), 광주성암교회(박광순), 광주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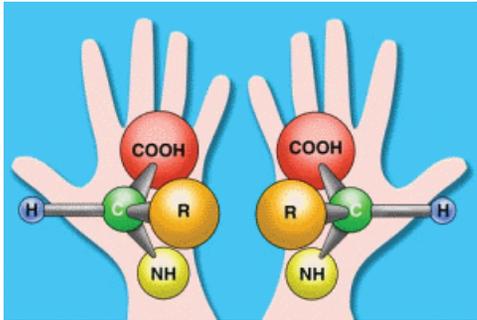
암중앙교회(박성수), 인천동춘교회(윤석호), 기독교장로회 서울남노회 청년선교위원회 등에서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세미나 가운데 성경에 대한 증거들이 분명히 전달되도록, 또한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기도 부탁 드립니다. 3월 17일(토)에는 ITCM 동문회도 있습니다.

창조과학세미나

이충현 강사는 지난 2월 11일, 3월 4일 2회에 걸쳐 시애틀 벨링햄 화평교회(담임목사 김기복)에서 제직자를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노아홍수 전기'와 '노아홍수후기'를 전하였으며, 참석한 교회의 중직자 분들께서 입을 모아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많은 오해가 풀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새가족들에게도 이런 세미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노희성 강사는 제일영광교회(담임목사 박현웅)에서 2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일 저녁 5회에 걸쳐 창조과학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과 '종의 기원'을 전하였으며, 성경대로 이루어진 창조세계와 복음을 나눌 때 사실인 성경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인해 더욱 기뻐하는 성도님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월 22일에는 용인글로벌기독교학교(교장 윤정호 목사)에서 지난 12월 첫 번째 세미나에 이어 청소년을 위한 두 번째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신이 원숭이같은 동물 조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확인하였을 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세미나와 함께 즐거운 크래프트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반칙 눈치채기- 1out, 2out, 3out(2)



진화론자들에게 RNA는 원시지구의 유기물 수프 속에서 진화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희망의 건데기이다. 그러나 생체 밖에서 합성된 고분자 유기물에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생명체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이나 오탄당 등 유기 분자들은 빛에 대하여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오른손형(D-형)과 왼쪽으로 회전하는 왼손형(L-형) 구조를 갖는다. DNA나 RNA에는 오

직 D-형 오탄당만 사용되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오직 L-형만 사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생체 분자들이 오직 생명체 안에서만 생산되어야 함을 지시한다.

반면, 실험실에서 합성된 유기물들은 언제나 D-형과 L-형이 반반씩 섞여서 만들어진다. 자연에서 저절로 합성된 예는 없지만 만약 그런 예가 있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다. 자연에는 D-형 오탄당과 L-형 오탄당을 골라내는 능력이 없으므로, 실험실에서 합성된 RNA가닥은 D-형과 L-형 오탄당이 섞여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RNA는 효소로서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자기 복제를 일으키지 못한다. 까다롭게도, 생명체 안에는 단 한 개도 이런 섞인 분자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RNA가 '생체 밖'에서 '저절로' 만들어졌다 해도 생명체와는 무관한 이유이다. 실험실에서 RNA분자들이 합성되었다 하더라도 생명체에 전혀 쓸모 없는 죽은 건더기인 셈이다. "2 out!"

그런데, 오직 D-형 오탄당으로만 이루어진 RNA가 주어진다해도 생명체의 자연발생은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체의 모든 조직과 기능을 위해서는 여러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RNA는 염기서열을 가지지만, 그 서열대로 아미노산을 연결시키는 능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 단 두 개의 아미노

산조차 연결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RNA 혼자서는 어떤 촉매 단백질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뜻이므로, DNA 형성을 위한 어떤 효소도 생산해 낼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다. 실제로, 여러 촉매 단백질의 도움 없이는 DNA를 만들 수 없으며, DNA 정보 없이는 단백질이 생산되지 않고, RNA가 없이는 그 어떠한 DNA 명령도 수행될 수 없다. 결국 어떤 가정으로 출발해도 단백질(효소), DNA, 그리고 RNA라는 복잡한 고분자 유기물들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원초적인 문제로 돌아오고 만다. "3 out!"

그러므로, RNA 세계로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돌연변이가 누적되고, 이를 통해 단백질과 DNA, 더 나아가 단순한 세포와 복잡한 세포로 진화해 나아간다는 화학진화의 설명은 수없이 많은 '믿음'으로 그 사이를 메꿔야 하는 공상에 불과한 것이다. '원시 수프에서 자기 복제가 가능한 화학물질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라는 말로 생명기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치명적인 반칙들을 숨겨놓은 그럴듯한 과대광고 문구였다. 그들은 기원에 대한 설명에 있어 결코 '믿음'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밝히지도 않았다. 단지 '창조주에 대한 믿음'만을 배제했을 뿐이다. 오직 자연주의라는 신념의 명석 위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면서 이 시대를 덮고 있는 강력한 패러다임을 고수할 뿐이다.

DNA의 구조를 밝혀 노벨상을 받은 분자 생물학의 거장으로 알려진 크릭(Francis Crick, 1916-2004)은 지구에서 생명체의 자연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외계 생명체 유입설에 심취했다. 지구에서는 도저히 DNA, RNA, 및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이 동시에 자연 발생할 수 없기에 외계인이 지구에 생명체를 전달한 것으로 믿은 것이다. 이것이 해결책인가? 이는 자연주의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복잡한 유기분자들이 동시에 출현할 수 없는 이 난감한 문제를 저기 먼 우주 어디인지 모르는 곳으로 던져버린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생명 기원에 관한 이 세대의 풍조이다. 이에 영향을 받아 기독교인조차 성경에 기록된 기원에 대한 역사보다 물질적인 설명을 우월하게 여기며 선호한다면, 이는 안타까움을 넘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생명체를 보고 사람들은 극과 극의 반응들을 보인다. 분명, 인간은 세상을 볼 때, 감각신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 그 해석은 사실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반칙인지 알면서 세상 풍조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 계셨던 분의 증언인 성경 안에 거할 것인가? 창조주만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라.



노휘성
지구과학교육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느꼈고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하고 성경을 온전히 믿고 느끼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한주영<섬김의교회>



나는 진화론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생각이 깨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과학이라는 포장지 안에 담긴 진화론을 놓지 않으려했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 창조과학탐사에 온 것을 너무나도 감사할 수 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빨리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 나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놀랐다.

-김호수<예인교회>

기대없이 왔던 창조과학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던 저에게 이번 창탐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눈으로 볼 수 있었을 때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이곳을 더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동호<예인교회>

제가 알고 있던 진화론적 생각들은 선교사님의 강의로 와르르 무너졌고, 선교사님이 보여주신 자료들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고, 처음은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강윤석<예인교회>

교회활동에 참여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싶었습니다. 근데 수련회는 뭔가 부담스런 감이 있고, 전도여행은 내 자신이 너무 신실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때에 창조과학탐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서 참여해본 결과 일주일 동안 깨닫는 것도 정말 많았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아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고정륜<섬김의교회>



성경을 믿고 창조되었음을 믿었지만 이곳에 와서 보니 제 머릿속에는 진화론이 가득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백번 들었던 시간보다 이곳에서 본 한번이 제가 앞으로 살아갈 많은 시간을 이끄는 힘이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진화

의 반대가 성경임을 가슴 깊이 담아갑니다. 돌아가 자녀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김미애<예인교회>

성경을 어릴 적부터 배워왔지만 진화론을 배울 때 의심없이 받아들였었다. 내가 정말 성경을 몰랐고, 패러다임에 갇혀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 왔는데 처음으로 무너지는 학교와 교회, 친구들이 떠오르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데...' 하는 생각과 기도를 결심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의 비전을 알게되었다. -류혜리<예인교회>

모태신앙이었고 창세기를 학교 교과서 보다 먼저 보았지만 교과서에 의해 세뇌된 제 자신과 이 시대가 부끄럽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데 "기독교(성경) 때문에 과학발전이 늦어졌다" 라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언젠가 반드시 저의 친구들도 창조과학탐사로 이끌어 생각이 변하게끔 하고 싶습니다. -강석호<예인교회>

2018 ACT Schedule

4/6	창조과학세미나 (남가주프라이미스교회), 이재만
4/8-14	창조과학탐사 (생터성경사역원), 이재만
4/16-18	창조과학탐사(남침례교국내선교부), 이재만
4/20	창조과학세미나 (남가주프라이미스교회), 이재만
4/23-27	창조과학탐사 (대전온누리교회), 이재만
4/28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4/30-5/5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만
5/10-17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5/18-24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26	창조과학세미나 (LA순회선교단), 이재만
5/28-6/2	창조과학탐사 (이랑학교), 이재만
6/4-9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인투온누리교회), 이재만
6/11-18	창조과학탐사 (헷볼트리니티 CEO스쿨), 이재만
6/19-23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대학원), 이재만
6/25-29	창조과학탐사 (뉴욕에일장로교회), 김선욱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